

# ‘불닭볶음면 파워’ 삼양식품, ‘3억불 수출탑’ 수상

## 한국 라면 수출의 50%...中·美 등 90여 개국 수출



1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'3억불 수출의 탑'을 수상했다.  
 2 '2020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' 삼양라면 부스 3 수출용 불닭볶음면

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업계 처음으로 '3억 불 수출의 탑'을 수상했다.

무역의 날 기념식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매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행사다.

삼양식품은 지난 2017년 1억 달러 수출탑, 2018년 2억 달러 수출탑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.

제작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출액은 3억840만 달러(3천654억

5천400만 원)로 전년 동기(2억8천440만 달러) 대비 8% 증가했다.

한국 라면 수출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%까지 확대됐다. 현재 수출국은 90여 개국에 달한다.

삼양식품은 온·오프라인 시장 개척과 현지 판로를 확대해 수출국을 늘렸다. 중국은 오프라인 판매 지역을 전역으로 확장했고, 온라인에서는 이커머스 업체인 핀둬둬와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입점해 판매망을 구축했다.

월마트 등 주류 마켓 진출로 미국 시장 비중을 늘리고, 아랍에미리트(UAE) 현지 유통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지역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.

또 K-푸드 열풍을 이끄는 불닭 브랜드 제품군을 면에서 간편식·소스로 다양화하며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.

삼양식품은 향후 수출 전진기지가 될 밀양 신공장과 중국, 미국, 일본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.

연간 6억 개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공장이 올해 상반기 완공하면 해외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.

김정수 총괄사장은 "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수출 기업으로서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"며 "수출 증대에 따른 성장세에 발맞춰 국내 고용을 늘리고 사회공헌 확대에 힘쓰겠다"고 말했다. ⑤



삼양식품이 UAE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과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.